

중년기 취업모의 가족부양부담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 가족지지 자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

The Effect of Family Caregiver Burden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iddle-Aged Working Mothers: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Resources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박주희**

Dept of Social Welfare, Sungshi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Park, Ju-H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resources on family caregiver burden as it in turn affects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iddle-aged working mothers. Through purposive sampling, the study recruited 325 married employed mothers age 40-50 years who live in Seoul and who have more than 1 child and living parents or parents-in-law. The investigation was performed April 1-30, 2018, with the participants sampled from companies, schools and religious organizations in Seoul. The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the SPSS 21.0 pack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of all categories of caregiver burden, the score for burden of caring for elderly parents was 3.01 (SD = .81), slightly higher than the median of 3 points; childcare burden scored 3.16 (SD = .73), also higher than the median value; and family support resources scored 3.40 (.89), higher than the median of 3. Overall psychological well-being rated 3.25 (SD = .56). Second, health and educational level, the burdens of caring for elderly parents and childcare and family support resources were found to significantly affect psychological well-being. Third, family support resources, a moderating variable, were found to significantly moderate and ease the effect of childcare burden on middle-aged working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Furthermore, in

* 본 연구는 2018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교신저자: 박주희(pjh@sungshin.ac.kr)

the analysis of their moderating effect, family support resources were confirmed to positively affect psychological well-being by moderating childcare burden experienced by middle-aged working mothers.

Key Words: 중년기 취업모 (middle-aged working mothers), 가족부양부담(family caregiver burden),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 가족지지 자원(family support resources)

I. 서론

최근 한국사회는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족내 돌봄의 영역은 사회적 지원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취업모의 삶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기혼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2018) 발표에 따르면, 비취업여성 가운데 결혼과 임신, 자녀출산과 교육 등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184만7천명으로 보고되어 기혼 취업모의 상당수가 자녀의 양육과 노인 부양으로 인해 직업생활을 중단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전히 한국사회의 가족 부양의 책임이 여성의 몫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본다. 전통사회에서 부양은 가족주의적 가족관의 영향으로 당연히 가족의 과업으로 이해되었지만 전통적 가족주의가 점차 개인주의, 평등주의, 합리주의 등의 근대적 가치와 함께 혼재됨에 따라 가족의 부양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중년기 취업모들은 부양에 대해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 혼란과 심리적 갈등을 높게 경험할 수 있다(김미혜 외, 2006).

중년기 취업모에게 부양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 역시 신체적·경제적·심리적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있지만 여전히 자녀와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역할부담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증장년층 부양실태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증장년층의 39.5%가 미

혼 성인 자녀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었고 남성(32.2%)보다는 여성(46.0%)이 이중부양 부담을 더 많이 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유경외, 2018). 뿐만 아니라 심현정과 정나라(2018)의 조사에서도 50대와 60대 가구의 74.8%는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응답 가구의 75.7%는 자녀에게 학자금, 결혼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중년기 세대의 노인부양과 성인 자녀에 대한 부양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년기 취업모는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면서 겪는 갈등을 비롯해 곧 다가올 은퇴와 자신의 신체적 노후에서 오는 위기적 징후를 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지만 한편으로 여전히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즉 중년기 취업모는 심리적·경제적·신체적으로 자녀와 노부모를 지속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심리적 복지감을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에 중년기 취업모의 부양부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측 요인 및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보다 활발히 전개될 필요가 있다.

부양부담에 관련된 초기 연구들은 주로 장애가 있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정신장애가 있거나 알츠하이머형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었다(박주희, 2017). 대다수의 취업모의 가족부양부담의 연구들은(Park & Liao, 2000; 강기연, 2001; 정규형, 2013; 이선아, 2014; 고은비, 2016) 취업모들의 가족부양과 가사일로 인한 과중한 부담 및

남편의 지지, 성역할 태도, 가사노동분담 등의 개인 효과를 살펴보는 등 주로 자녀양육기의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중년기 취업모의 부양부담과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중년기는 자신과 가족구성원들의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는 시기로 가족관계의 역동성을 고려해야 한다(김경민·한경혜, 2004). 중년기는 가정의 안정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 더욱 힘써야 되는 시기이라고 볼 때(최인영·최혜경, 2009), 가족부양부담과 가족지지 자원에 초점을 둔 심리적 복지감의 연구는 중년기 취업모를 지원하는 데 유용한 다양한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사회가 가족부양은 가족 내 여성이 주책임자라는 인식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가족부양에 관한 가족의 지지 자원은 특히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Pealin et al.(1990)은 스트레스 과정모델을 통해 부양부담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지지 자원의 하나로 가족지지 자원은 유용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족지지를 자원의 관점에서 파악해 보면, 가족지지 자원은 본래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적 특성을 모두 포괄하며 개인적 특성을 비롯하여 친척, 이웃의 사회적 관계 및 지지까지 포함한다(김미영, 2013). 가족지지 자원은 취업모의 가족부양부담과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를 완충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는 인적자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년기 취업모를 중심으로 가족부양부담과 심리적복지감의 관계에서 가족지지 자원의 완충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그 시사점이 클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지지 자원이 중년기 취업모의 부양부담과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를 완충하는 긍정적 자원으로서 기능하는지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특히 가족부양부담의 문제를 노인부양의 문제나 미취학자녀의 양육을 분리하여 다른 기존연구들에서 나아가 중년기에 경험하는 가족부양부담의 문제를 노인부양부담과 자녀부양부담의 이중구조를 함께 살펴보고자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 취업모의 가족부양부담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지지 자원의 조절효과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년기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감 증진에 필요한 가족정책 및 서비스 방안의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중년기 취업모의 부양부담, 가족지지 자원, 심리적복지감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중년기 취업모의 심리적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가족지지 자원은 중년기 취업모의 부양부담과 심리적복지감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가족부양부담

1) 가족부양부담의 개념

부양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부양은 봉양, 수발, 돌봄 등 다양한 용어와 함께 사용된다(송다영, 2004). 정창수(2009)는 부양 개념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동거 또는 비동거 상태로 정서적 지지, 필요자원의 제공, 관계형성, 이동 시의 도움, 일상생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도움의 제공 등을 포함한 행위로 정의하였다. 김유경(2016)은 부양을 피부양자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측면의 욕구충족을 위한 자원제공과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처를 통해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부양은 또한 그 범위에 따라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되는데(김윤정, 1999), 부양에 대한 협의의 개념은 인간이 어떻게 생활을 유지해가며 생존을 보장받고 있는가와 같은 일상적인 평범한 문제로 보는 것이며, 부양에 대한 광의의

개념은 유년, 노령, 실업과 같은 자연적 또는 사회적 원인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보조, 보호하여야 하는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보았다. Seltzer & Wailing (1996)는 부양은 보통 '노인'의 지원과 관련된 개념이고 양육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의 지원과 관련된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부양과 양육은 그 대상이 다르지만 부양부담과 양육부담은 대상만 다를 뿐 심리적 부담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송경미(2016)는 가족부양부담을 노부모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측면의 지원과 관련된 부담이며, 자녀와 관련해서는 부모로서 자녀의 성장과 교육을 위해 경제적, 정서적, 시간적 자원을 지원하며 자녀를 양육하는데 사회적 역할의 어려움과 불편함의 경험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가족부양부담은 중년기 취업모가 노부모와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경제적·정서적·시간적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정의하였다.

2) 부양부담의 실태

노년기가 길어지고 부모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기간이 연장되면서 중년기에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간 역시 장기화되고 있다. 반면 이렇게 길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의 상호 기대와 책임에 대한 지침이나 규범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Bengtson, Rosenthal & Burton, 1990). 서구사회는 일찍이 복지제도의 구축을 통해 부양부담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우리사회의 경우 돌봄의 사회화 제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기혼여성의 사회활동이 확대되어 가족내 부양의 공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족주기의 관점에서 볼 때 중년 부부가 노부모를 부양해야하는 시기는 자녀들의 교육비나 결혼 비용들을 지원해야하고 자신의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와 중첩될 가능성이 높아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성실히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권기갑·이재모, 2009). 김유경(2016)의 연구에서는 부모 부양으로 인한 월평균 지출액이 34만 8천

원이었으며 40대~60대의 70% 가량이 부모 부양을 위한 경제적 지출을 하고 있으며, 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은 24.6%가 경제적 부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층의 상당수가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에 대한 부양부담 역시 심각해지고 있는데 전 통사회에서 부모는 많은 수의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에 대한 지식을 얻거나, 부모, 형제 등의 지지가 충분했지만, 현재 부모들은 저출산, 핵가족화 등의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 살고 있으며 가족 내의 양육문제를 혼자 해결하기가 어려워졌고(조복희·정민자·김양은, 2006), 자녀의 양육에서 오는 신체적·정신적 부담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 역시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청(2019)의 '2018년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학원비를 포함한 교육비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연령대가 40대가 77.5%, 50대도 38.7%로 나타나 중년층이 느끼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는 부모의 자녀의 교육열이 매우 높고 학력은 사회적 지위, 직업선택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학력이 높은 부모의 경우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한 방안으로 사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김혜선·박효진, 2016).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중년기 부모는 사교육비 지출을 가계의 필수지출로 여기고 있다.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미성년 자녀뿐 아니라 성인 자녀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자녀들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고액의 자녀 학자금은 중년기 가구주들의 상당히 높은 지출 항목이 되고 있다. 중년기 취업모들은 직장생활을 통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 만족스러운 경제 상태를 누리기를 기대하지만 자녀에 대한 계속된 지원으로 인한 부담으로 심리적 복지감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2. 가족지지 자원의 기능

가족의 주요 기능은 사회적 규범으로 인정된 사랑과 지지를 교환하는 것이다(Hollen, 1981). 지지란 애정·승인·소속 및 안정에 대한 개인의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의해 충족되는 것이다(Hampe, 1975). 즉, 가족은 구성원의 심리적 요구 충족과 성격유지, 안정화를 이루는 기능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그 구성원들이 건강한 발달이나 성장을 지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Friedman, 1991). 또한, 가족지지는 최상의 지지체계로 역할 상실과 기능감퇴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완충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들의 삶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유지,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김귀분·조성은·이윤정, 2012; 서희숙·정인숙, 2010). 또한 가족지지만 가족체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돌봄, 사랑, 존중, 도움주기, 정보제공 등의 교환이라는 기능을 의미한다(Cobb, 1976). 사회적지지 주요체계로 가족, 친구, 지역사회가 있는데 이 중 가장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이 가족이며 결국 중요한 사회적지지는 가족지지만 할 수 있다(유양경, 2004; Weeks & Cuellar, 1981). 따라서 가족지지는 중년기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의 과정에서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중년기 취업모의 다중 역할 수행과 자녀와 노부모세대의 부양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원이다. 일과 가정생활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우선적으로 사회적 지원과 제도이다 보니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김수정, 2015) 가족지지 체계 중 배우자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일-가정 균형이 높고(장윤옥·정서린, 2016),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지민, 2018). 이처럼 가족지지 자원은 취업모의 과중한 역할부담을 해소시키는 가장 일차적이며 중요한 지지로서 가족원의 지지가 적응에 실패하게 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제공하며 중년기 취업모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심리적 복지감

1) 심리적 복지감의 개념

심리적 복지감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심리적 복지감은 생활의 만족도나 행복감 등의 개념들 중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의 정서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정서와 긍정적인 정서를 비교함으로써 얻게 되는 총체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다(Diener, 1984). Bryant & Veroff(1982)는 심리적복지감을 개인의 생활환경에 대한 반응 및 정신건강의 지각으로 각자 경험의 주관적인 평가라고 정의하여 정서적 차원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차원을 포함시켰다. 장영은(1998)은 심리적 복지감을 개개인이 느끼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과 안녕감을 사회적 평가에서 파악한 개념이라고 하였다. 한편 심리적 복지감은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자 삶의 과정에 있어 성공적인 적응을 측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측정이 어렵다(이혜경, 2009). 이에 심리적 복지감을 측정하고 개념화하는 가운데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조상희, 2011). 그것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일직선상에서 파악하는 일차원적 접근과 독립적인 영역으로 파악하는 이차원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일직선상에서 파악하여 생활 전반에 느끼는 정서적·인지적 차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가족부양부담과 심리적 복지감

가족부양부담과 심리적 복지감에 주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Cantor(1983)에 따르면 부양자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의 요구에 대한 재정적인 어려움, 심리적 갈등, 소외, 자유와 여가시간의 제한 등의 정신적인 소모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George & Gwyther(1986)의 연구에 따르면 과중한 노부모 부양부담으로 중년기 자녀들의 삶에서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로 보고하였다. 주상애(2006)는 사회교환이론의 관점에서 자녀들은 부모들과의 관계에서 부양비용이 그들이 받는 혜택보다 크다고 생각할 때 부양부담을 경험하게 되고,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하는 것에 대한 부담 또한 커진다고 하였다. 이인정(2001)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돌봄의 부담은 부양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자유시간이나 사회적 활동의 제한, 역할갈등, 다른 가족성원들과의 관계 악화, 경제적 압박 등 삶의 다양한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부양부담의 연구는 주로 미취학자녀를 중심으로 한 양육부담과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었다(정지연, 2008; 이선아, 2014; 고은비, 2016). 그런데 최근 교육기간의 연장과 청년실업의 장기화로 인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또한 만혼 경향으로 인해 원가족내의 동거기간 역시 장기화 되는 추세이다(김유경 외, 2015). 이로 인해 청소년기부터 성인기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세대가 늘어나고 있어 자녀부양에 따른 중년기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감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3) 가족지지 자원과 심리적 복지감

가족지지와 같은 대인적 자원은 체계 내 구성원들의 관계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자원으로, 사랑, 지위, 정보 등으로 설명되며 이를 통해 관계 안에서의 정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구체적 성질의 실제적 자원까지 포함될 수 있다(강기연, 2001). Koropeckyj-Cox(2002)는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울수록 심리적 복지감은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김유정과 안정신(2011)은 가족관계 안에서의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등은 중년기 성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강란혜(2008)은 일본 중년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완충 효과를 연구하였고 가족지지는 생활스트레스에 완충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신화용과 조병은(2001)은 은퇴한 노인부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한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대인적 변인인 자녀와 친척들로부터의 지지가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밝혔다. 김혜신과 김정신(2003)의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는 취업주부의 심리적복지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며, 배우자의 지지가 높을수록 취업주부들은 생활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olahan & Moos(1990)는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족의 응집정도, 표현정도, 갈등정도 등이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 Ellison(1991)은 가족의 지지적인 환경은 개인의 삶의 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심리적복지감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연령, 학력, 월소득, 직업유형, 건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연령과 관련해서는 연령이 삶에 대한 총체적 만족감이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연구(Campbell, 1981)가 있는가 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진다는 연구(권태연, 2009)도 있다. 조옥희(2004)는 연령이 높을수록 위기감이나 우울 성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연령과 심리적 복지감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김영숙·최규련, 2006). 교육수준과 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황혜원, 2012). 김지현(2011)은 취업모의 월수입은 삶의 만족도와 정적상관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Spitze(1988)는 취업여성들은 자신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아지고, 취업모의 가계의 경제적 기여도는 배우자의 지지를 얻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며 배우자의 지지를 얻게 될 때 심리적 복지 수준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김금운과 윤가현(1998)의 연구에서도 취업모가 자신의 가계경제 기여수준

을 높게 지각 할수록 심리적 복지감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요인과 관련하여 이동호(2010)와 박순미·손지아·배성우(2009)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직장유형과 관련한 연구들에서는 전문직 취업모는 불안과 우울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반면 김영철·정향균·이시형(1989)과 또 다른 연구는 직업은 개인적 행복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직업지위가 높을 때 삶의 질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조희금, 1999). 이희정(2009)의 연구에서는 전문직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결혼 행복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전문직 취업모가 사무직 취업모에 비해 더욱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연령, 학력, 건강, 월소득, 직업유형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40~50대의 자녀를 1명 이상 두고 있고 시부모 또는 친정부모가 생존해 있는 취업모를 유의적 표집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대상자 표집은 2018년 4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서울 지역 기업, 학교, 종교기관 등에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부실기제를 제외하고 325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은 40대 258명(79.4%), 50대는 67명(20.6%)이며 평균 48.3세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수준은 고졸이 97명(30.0%), 대졸은 183명(56.7%), 대학원졸이상

은 49명(13.3%)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58명(19.3%), 300~500만원 미만은 136명(45.3%), 500만원~700만원 미만은 63명(21.0%), 700만원 이상은 43명(14.3%)로 나타났다. 가구 월소득 평균은 약 436만원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직업을 보면 전문직/관리직이 49명(15.6%), 판매/서비스직이 149명(47.3%), 사무직 61명(19.4%), 기타 56명(17.8%)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의 경우 나쁘다 32명(9.9%), 보통이다 183명(56.3%), 좋다는 109명(33.9%)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	40대	258	79.4
	50대	67	20.6
학 력	고졸	97	30.3
	대졸	183	56.7
	대학원졸 이상	49	13.3
월소득 (M=436.06, SD=196.55)	300만원미만	58	19.7
	300-500만원미만	136	45.3
	500-700만원미만	63	21.0
	700만원이상	43	14.3
직 업	전문직/관리직	49	15.6
	판매/서비스직	149	47.3
	사무	61	19.4
	기타	56	17.8
건강	나쁘다	32	9.9
	보통이다	183	56.3
	좋다	109	33.9
합계		325	100.0

* 무응답으로 인해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2. 측정도구

1) 독립변수

(1) 부양부담

① 노부모부양부담

노부모 부양부담의 도구는 손서희(2004)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이용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은 부양

부담으로 인한 벗어나기를 원함 2문항,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2문항, 경제적 어려움 2문항, 사생활의 결핍 2문항, 건강문제 2문항, 책임과 스트레스 2문항을 포함하여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부양부담이 높음을 의한다. 부모부양부담 12개 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91$ 로 나타났다.

② 자녀양육부담

자녀양육부담은 송경미(2016)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은 자녀양육에서 벗어나고 싶음 2문항,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2문항, 정신적 피곤함 1문항, 신체적 피곤함 1문항, 경제적 부담, 2문항, 자녀와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 1문항, 진로문제 고민 1문항, 사생활의 결핍 2문항 등을 포함하여 총 12개 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양육부담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족부양부담 12개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86$ 로 나타났다.

(2) 가족지지 자원

본 연구에서 가족지지 자원은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가족지지 척도로 재구성하여 수정한 오연례(201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가족지지 척도는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 가능하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정문항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다. 가족지지 자원 척도의 구체적 내용은 가족으로부터 받는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지지관한 6개 문항, 필요한 금전과 재화, 서비스, 시간 등의 제공에 대한 지지관한 6개 문항,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정보나 조언 등에 대한지지에 관한 7개 문항, 그리고 인정, 가치존중, 의사존중 등 자신을 평가해 주는 태도와 행위를 포함하는 지지 등

을 묻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지지 자원 25개 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8$ 로 나타났다.

2) 종속변수: 심리적 복지감

심리적 복지감은 심세연(2016)이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완벽추구', '전반적 삶의 만족', '삶의 회고와 평가', '생활양식에 대한 만족', '생활양식에 대한 회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역코딩이 필요한 문항은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복지감 5개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2$ 로 나타났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심리적 복지감의 통제변수로는 연령, 학력, 가구소득, 건강상태, 직업유형의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2〉 측정도구의 변수별 신뢰도 계수

		변수	문항수	신뢰도
독립변수	부양	노부모부양부담	12	.91
	부담	자녀양육부담	12	.86
조절변수	가족지지 자원		25	.88
사회 인구학적 특성	- 연령(연속변수)		5	
	- 학력(1=고졸, 2=대졸, 3=대학 원졸 이상)			
	- 건강(1=나쁘다, 2=보통이다, 3=좋다)			
	- 월소득(연속변수)			
종속변수	- 직업유형(1=전문직, 기타=0)		5	.92
	심리적복지감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Package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첫째, 연구모형의 척도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Cronbach Alpha 값을 구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부양부담, 가족자원, 심리적 복지감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부양부담, 가족지지 자원, 심리적 복지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족지지 자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할 때,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집중화(mean centering)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중년기 취업모의 부양부담, 가족지지 자원, 심리적 복지감

중년기 취업모의 부양부담, 가족자원, 심리적 복지감 수준을 분석한 결과(표 3), 먼저 부양부담 영역에서는 노부모부양부담은 3.01(SD=.81)로 나타났으며 자녀양육부담은 3.16(SD=.73)로 나타났다. 가족지지 자원은 3.40(.89)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심리적 복지감은 3.25점(SD=.56)로 나타났다.

〈표 3〉 중년기 취업모의 부양부담, 가족자원, 심리적 복지감

변인		M(SD)
부양부담	노부모부양부담	3.01(.81)
	자녀양육부담	3.16(.73)
가족지지 자원		3.40(.89)
심리적복지감		3.25(.56)

2. 중년기 취업모의 가족부양부담과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에서 가족지지 자원의 조절효과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에 우선해서 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일반적으로 변수들 간의 단순 상관관계가 0.8이상일 때 다중공선성 문제를 의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4〉과 같이 상관계수가 0.8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회귀분석에 우선해서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차한계 및 VIF계수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다중공선성의 위배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Dubin-Watson계수 각각 2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잔차간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회귀 가정은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4〉 가족부양부담, 가족지지 자원,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

구분	노부모부양부담	자녀부양부담	가족지지	심리적 복지감
노부모부양부담	1			
자녀부양부담	.41**	1		
가족지지	-.17**	-.43**	1	
심리적 복지감	-.36**	-.20**	.45**	1

* $p < .05$, ** $p < .01$

다음으로 부양부담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가족지지 자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1단계에서는 연령, 교육, 월소득, 직업유형, 건강의 통제변인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통제변수들과 노부모부양부담, 자녀부양부담, 가족지지 자원을 투입하고, 3단계에서는 2단계에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표 5)와 같다. 먼저 1단계는 통제변인을 투입하였으며 1단계의 설명력은 28.8%($F=24.852$,

p<.001)였고, 심리적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 유의미한 변수는 건강상태, 학력, 직업, 월소득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인 경우 그리고 월소득이 높을수록 중년기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감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의 분석결과는 설명력은 36.8%였고(F=22.269, p<.001), 설명력이 8.0%p 증가하였으며 1단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던 건강, 학력은 2단계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월소득, 직업유형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부양부담, 자녀부양부담, 가족지지

자원이 심리적 복지감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중년기 취업모의 건강이 좋을수록 그리고 가족지지 자원을 높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부양부담과 노인부양부담이 낮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의 설명력은 41.9%였고(F=20.377, p<.001), 설명력이 5.1%p 증가하였으며 2단계에서 영향을 미친 건강, 학력, 노인부양부담, 자녀부양부담, 가족지지 자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3단계에서 자녀부양부담과 가족지지 자원의 상호작용 항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의

〈표 5〉 가족부양부담이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지지 자원의 조절효과

모형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공차 (VIF)	B	β	공차 (VIF)	B	β	공차 (VIF)
(상수)	1.113			1.212			.804		
연령	.001	.006	.989 (1.012)	.010	.050	.957 (1.045)	.012	.060	.950 (1.052)
학력	.214	.257***	.790 (1.266)	.160	.192***	.757 (1.321)	.195	.235***	.727 (1.375)
월소득	.000	.111*	.928 (1.077)	.000	.040	.850 (1.177)	.000	.042	.848 (1.179)
직업유형(1=전문직, 기타=0)	.244	.153**	.812 (1.232)	.122	.077	.744 (1.345)	.147	.092	.731 (1.367)
건강	.347	.473***	.978 (1.023)	.242	.331***	.760 (1.315)	.278	.381***	.721 (1.387)
노인부양부담				-.101	-.123*	.675 (1.481)	-.102	-.105*	.651 (1.537)
자녀부양부담				-.079	-.152**	.759 (1.318)	-.088	-.170**	.706(1.417)
가족지지자원				.238	.316***	.598 (1.071)	.218	.290***	.570 (1.755)
노인부양부담*가족지지자원							-.040	-.064	.724 (1.381)
자녀부양부담*가족지지자원							.137	.160***	.720 (1.390)
adj R ²	.288			.368			.419		
F	24.852***			22.269***			20.377***		
Durbin-Watson	1.776			1.850			1.789		

*p<.05, **p<.01, ***p<.001

영향력을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건강, 학력과 독립변수인 노인부양부담, 자녀부양부담, 조절변수인 가족지지 자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 자녀부양부담과 가족지지 자원의 상호작용항이 심리적복지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조절변수인 가족지지 자원이 자녀부양부담이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지 자원은 중년기 취업모가 겪는 자녀부양부담을 조절함으로써 심리적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오늘날 한국사회의 중년층은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젠더역할을 비롯한 가족내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첫 세대이지만 동시에 전통적 가치관의 영향권 내에 머물러 있는 마지막 세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부양의 이중부양부담에 직면해 있는 중년기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감은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취업모들이 경험하는 가족부양부담이 중년기 취업모의 가족부양부담과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에서 가족지지 자원의 조절효과를 규명해봄으로써 중년기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감 증진에 유용한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청소년기 이후 자녀를 1명이상 두고 있으며 친정과 시가 노부모가 1명 이상 생존해 있는 중년기 취업모를 유의적 표집을 통해 325 표본을 추출하였다.

분석결과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취업모의 가족부양부담, 가족지지 자원, 심리적 복지감 수준을 분석한 결과 가족부양부담 중 노부모부양부담은 3.01(SD=.81)로 나타났으며 자녀양육부담은 3.16(SD=.73)로 나타났다. 가족지지 자원은 3.40(.89)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심리적 복지

감은 3.25점(SD=.5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 취업모의 경우 노인부양부담보다는 자녀부양에 대한 부담을 더욱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지원이 자녀에 대한 사교육 지원, 진로문제, 취업,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갖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이 자녀보다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노인을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기초연금 제도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초기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4.2%(2008년)에서 8.1%(2018년 3월)로 증가하였으며(이윤경, 2018), 기초연금 역시 2014년 약 423만명에서 2019년 약 520만명으로 수급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이들 제도의 체감이 노인부양부담을 완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중년기 취업모의 가족부양부담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지지 자원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의 분석결과 설명력은 28.8%($F=24.852, p<.001$)였고, 건강이 좋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인 경우 월소득이 높을수록 중년기 취업모는 심리적 복지감을 더욱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의 분석결과 설명력은 36.8%였고($F=22.269, p<.001$), 설명력이 8.0%p 증가하였으며 중년기 취업모의 건강이 좋을수록 그리고 가족지지 자원을 높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부양부담과 노인부양부담이 낮을수록 취업모는 심리적 복지감을 더욱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의 분석결과 설명력은 41.9%였고($F=20.377, p<.001$), 설명력이 5.1%p 증가하였으며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건강, 학력과 독립변수인 노인부양부담, 자녀부양부담, 조절변수인 가족지지 자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년기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인 건강이 강력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동호(2010), 박순미 외(2009)등의 연구결과를 지지한 것으로 심리적 복지

감의 강력한 예측변인이 건강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업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중년기 취업모의 건강증진에 관련된 프로그램과 정책이 보다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자녀부양부담과 가족지지 자원의 상호작용항이 심리적복지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조절변수인 가족지지 자원이 자녀부양부담이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 연구에서 노부모부양부담이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지지는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아 노인부양부담은 가족지지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심리적복지감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노인부양부담(M=3.01점)이 자녀부양부담(M=3.16) 보다 낮게 지각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 표집의 편향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셋째, 가족지지 자원의 조절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가족지지 자원은 중년기 취업모가 겪는 자녀부양부담을 조절함으로써 심리적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취업모의 경우 자녀부양부담이 높게 지각될 때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가 자녀부양부담을 증대하여 심리적 복지감을 증진시키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지지가 부양부담과 같은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강란혜(2008)의 연구를 지지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부담이 큰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감을 증진하는 보호요인으로써 가족지지 자원이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학문적·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양육부담은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취학 자녀만이 아니라 청소년기 이후 성인기 자녀까지 지속적으로 자녀부양의 부담을 안고 있고 취업모의 삶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 자녀의

부양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진단과 사회적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자녀의 사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비롯해 독립된 자녀로서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는데 저해가 되는 요인을 사회적 차원에서 규명해야 하며 그에 따른 가정과 부모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사교육이나 고등교육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소비하지 않더라도 자녀들의 사회적 역할이 충분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와 진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과 부모를 지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부모교육의 확대를 통해 올바르게 효율적인 건강한 부모역할을 보다 잘 성찰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보급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중년층은 본인의 노후뿐 아니라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이중부양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은 세대이며 이중부양으로 인해 이들의 노후준비는 매우 불충분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노동시장의 고용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노후 준비가 불충분한 중년층은 미래에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이 노후 빈곤의 불안감에 휩싸이고 경제적 부양 스트레스와 갈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가족지지 자원은 중요한 완충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지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가족생활교육의 접근 내용이 대인관계 기술, 의사결정 기술, 가족 상호작용, 가족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 등을 다루고 있다고 볼 때(김경신, 2015) 이러한 교육들을 통해 가족지지감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중년기 가족의 응집과 결속력을 강화시켜주고 나아가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감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가족부양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확충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 이후 자녀를 지속적

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할 위험이 크다. 더욱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취업모의 어려움이 더욱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강화시켜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사회 내 자녀 돌봄과 노인 돌봄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돌봄의 지원체계가 확충되고 있지만 중년기 취업모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은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중년기 취업모에 초점을 둔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들이 취업모의 일과 가정생활균형에 필요한 실제적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첫째, 자녀부양부담이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가족지지 자원이 조절효과를 나타내 스트레스 완충모델 가설의 유용성을 입증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족부양부담의 문제를 만성질환노인 부양의 문제나 미취학자녀의 양육을 중심으로 다룬 기존연구들에서 나아가 중년기에 경험하는 가족부양부담의 문제를 노인부양부담과 자녀부양부담의 이중구조를 함께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가족부양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생애주기별 부양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가족부양부담의 측정이 보다 정교하게 구성되지 못하여 가족부양부담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 자녀와 노인부양부담을 폭넓고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둘째, 취업모의 직장생활 관련 요인을 직업유형에 초점을 두어 단순하게 살펴보았다. 후속에서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비교하여 직무특성별 심리적 복지감 관련 요인들이 규명될 수 있길 기대한다. 향후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중년기 취업모의 일상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나아가서 중년기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감 향상에 관련된 이론들이 보다 풍성하게 구축될 수 있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강기연(2001). 맞벌이 부부의 공평성 인지·의사 결정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 사무직·관리·전문직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강란혜(2008). 일본의 중년기 여성 생활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반응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3(1), 127-150.
- 3) 고은비(2016).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4) 권기갑·이재모(2009).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혁신논집, 4, 1-19.
- 5) 권태연(2009). 노년기 연소노인, 중고령노인, 초고령노인 집단의 스트레스 요인이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 2 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1), 163-196.
- 6) 김경민·한경혜(2004). 중년기 남녀의 가족 생활 사건 경험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4(3), 211-230.
- 7) 김경신(2015). 가정관리학 관점에서의 가족교육 현황과 전망.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5(11), 3-34.
- 8) 김귀분·조성은·이윤정(2012). 노인의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32(2), 487-499.
- 9) 김금운·윤가현(1998). 중년기 직장여성의 다중역할 특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3(1), 88-102.
- 10) 김미영(2013). 저소득가정의 사회적 배제, 가정 자원 및 탄력성의 구조방정식모형,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1) 김미혜·신경림·강미선·강인(2006). 고령화 한국사회의 부양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성공적 노후 삶의 유형별 부양체계 분석을 통하여. 한국노년학, 26(3), 617-639.

- 12) 김수정(2015).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지지와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일-가족향상의 매개효과 :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3) 김영숙 · 최규련(2006). 중년기 여성의 내외통제성과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173-199
- 14) 김영철 · 정향균 · 이시형(1989). 일반 성인에서의 생활 스트레스가 정신증상 및 신체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28, 282-291.
- 15) 김유경(2016). 부양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부양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5), 62-79.
- 16) 김유경 · 이진숙 · 손서희 · 조성호 · 박신아(2018). 중 · 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세종: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7) 김유정 · 안정신(2011). 중년기 성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성인기 이전 생활사건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 한국노년학, 31(3), 445-461.
- 18) 김윤정(1999). 대학생의 노인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 김지민(2018).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배우자 지지 및 일-가정 양립 촉진적 자기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 일-가정 향상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 김지현(2011). 중년여성의 전통무용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1) 김혜선 · 박효진(2016). 중 · 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 영향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7), 555-563.
- 22) 김혜선 · 김경신(2003). 맞벌이부부의 부모역할 갈등과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 117-131.
- 23) 박순미 · 손지아 · 배성우(2009). 노인의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중단적 접근 :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3), 1-24.
- 24)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 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5) 박주희(2017). 장기요양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양부담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자원의 조절효과-장기요양재가서비스 이용자를 돌보는 가족부양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3), 121-139.
- 26) 보건복지부(2019). 소득하위 20% 134만 5000명에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보도자료, 2019.4.25
- 27) 서희숙 · 정인숙(2010). 재가노인의 자아존중감과 가족지지 및 자살생각의 관계. 노인간호학회지, 12(1), 1-9.
- 28) 손서희(2004). 기혼자녀와 부모간의 친밀감에 따른 부양행동 및 부양부담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9) 송경미(2016). 중년기의 가족부양부담과 노후준비도에 관한 연구 :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0) 송다영(2004). 부양의식을 통해 본 노인부양 지원정책 방향성: 기혼여성의 부양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9, 207-233.
- 31) 신화용 · 조병은(2001).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자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1), 39-51.
- 32) 심세연(2016). 근로자의 직장-가정 전이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3) 심현정 · 정나라(2018). 5가지 키워드로 본 5060 세대의 가족과 삶. 2018 미래에셋 은퇴라이프 트렌드 조사 보고서. 서울: 미래에셋은퇴연구소.
- 34) 오연례(2016). 구직자의 취업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성산호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5) 유양경(2004). 재가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사기.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2), 297-306.
- 36) 이동호(2010).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0(1), 93-108.
- 37) 이선아(2014).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8) 이인정(2001). 노인간병가족의 부담요인 및 부담완화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실천방법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6, 319-348.
- 39) 이윤경(2018).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보호 현황과 저해 요인 분석. 보건복지포럼, 259, 77-89.
- 40) 이혜경(2009). “노인의 사회적 배제 정도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통권46(겨울). 315-336.
- 41) 이희정(2009). 취업모의 삶의 질에 관한 변인 탐색: 전문직과 사무직 집단의 일 만족도를 중심으로, 21세기사회복지연구, 6(1), 65-88.
- 42) 장영은(1998). 방과후 보호형태에 따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과 취업모의 양육 부담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3) 장윤옥·정서린(2016).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부정적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직업관련 변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2), 65-83.
- 44) 정규형(2013). 중년기의 가족부양부담이 개인의 노후준비정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5) 정지연(2008).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자기지각 및 사회적 지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6) 정창수(2009).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7) 조복희·정민자·김양은(2006).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 89-109.
- 48) 조상희(2011). 노인의 여가활동이 사회적 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9) 조옥희(2004).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역할갈등, 대처행동 및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50) 조희금(1999). 취업기혼여성의 일-가정갈등과 직업 및 생활만족도-생산직과 사무직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7(2), 145-158.
- 51) 주상애(2006). 노인부양 스트레스가 가족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2) 최인영·최혜경(2009). 한국 중년세대의 가치관 특성 및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81-109.
- 53) 통계청(2018).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경력단절여성 현황, 대전:통계청
- 54) 통계청 (2019). 2018 사회조사, 대전: 통계청.
- 55) 황혜원(2012). 어린자녀를 둔 저소득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47-64.
- 56) Bengtson, V. L., Rosenthal, C., & Burton, L. (1990). Families and aging: Diversity and heterogeneity.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3, 263-287.
- 57) Bryant, F. B., & Veroff, J. (1982). The structure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 sociolog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4), 653-673.
- 58)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 59) Cantor, M. H. (1983). Strain among caregivers: a study of experience in the united states” , The Gerontologist, 23, 597-604.
- 60)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 61)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
- 62) George, L. K., & Gwyther, L. P. (1986). Caregiver well-being: a multidimensional examination of family caregivers of demented adults. The Gerontologist, 26(3), 253-259.
- 63) Ellison C.G, (1991). Religious involvement and

-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91, Mar; 32(1): 80-99.
- 64) Friedman, J. H. (1991). Multivariate adaptive regression splines. *The annals of statistics*, 19(1), 1-67.
- 65) Hampe, S. O. (1975). Needs of the grieving spouse in a hospital setting. *Nursing Research*, 24(2), 113-120.
- 66) Holahan, C. J., & Moos, R. H. (1990). Life stressors, resistance factors, and improved psychological functioning: An extension of the stress resistance paradig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909.
- 67) Hollen, P. (1981). A holistic model of individual and family health based on a continuum of choic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3(4), 27-42.
- 68) Koropecjy-Cox, T. (2002). Beyond parental status: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dle and old 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4), 957-971.
- 69) Park, J., & Liao, F. T. (2000). The effect of multiple roles of South Korean married women professors: Roles changes and factors which influence potential role gratification and strain. *Sex Roles*, 43(7/8), 571-589.
- 70) Pearlin, L. I., Mullan, J. T., Semple, S. J., & Skaff, M. M. (1990). Caregiving and the stress process: An overview of concepts and their measures. *The gerontologist*, 30(5), 583-594.
- 71) Seltzer, M. M., & Wailing, L. L. (1996). The transitions of caregiving: Subjective and objective definitions. *The Gerontologist*, 36(5), 614-626.
- 72) Spitze, G. (1988). Women's employment and family relations: A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5-618.
- 73) Weeks, J. R., & Cuellar, J. B. (1981). The role of family members in the helping networks of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21(4), 388-394.

- 투 고 일 : 2019년 06월 14일
- 심 사 일 : 2019년 07월 01일
- 게재 확정일 : 2019년 08월 23일